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군에의 시사점

고 원*

- I. 서론
- II. 미래 전쟁 패러다임 변화 방향
- III.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 전망
- IV. 한국군에의 시사점
- V. 결론

Abstract

War Paradigm Shif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Military Operation

Long-range military planning needs the concept of operation of the future force to construct the future force about 2030 years. This paper explore the new future war paradigm using the results of anticipation of the economics, technologies, and social and cultural consciousness of future Korea.

New future war paradigm is named hyper·high concept war paradigm. This paper explore how to operate the future military force according to the new war paradigm.

This new implications for future military operation are consists of basic concepts, characteristics of operations - from the small dispute to the full-scale war.

Key Words : war paradigm, paradigm shift, military operation, hyper·high concept war paradigm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학 박사, kohwon@kida.re.kr

I. 서론

최근의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상황 변화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그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과 능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전면전의 위협으로부터 밖으로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위상의 상승에 따른 평화유지와 재건 지원, 군사협력 요구 등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변국 간의 영토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¹⁾ 이러한 주변국 간에 잠재된 갈등요소들이 우리에게도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능력의 구비가 요구되고 있다.

작금의 이러한 요구에 군이 부족하나마 적절한 대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과거 20여 년 전부터 준비한 전력과 군사력 운용능력에 의한 것이다. 군은 미래에 당면할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 다수의 가상 시나리오에 의거, 결과들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협이 큰 위협 위주로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위협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에 근거한 우선순위에 의해 군사력을 구축할 경우에는 적의 비대칭적이고 예상치 못한 도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불충분 영역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후적인 대비는 즉응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비 요구의 영역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긴급히 새로 배치한 전력은 최적의 대응전력이 아닐 수 있으며 다른 대비영역에서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급급해 할 때 적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을 개발하여 우리의 대응능력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력 건설에는 긴 선행기간이 요구된다. 군사력의 운용 개념을 개발하고, 이에 합당하는 전력을 기획하여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등의 전력화에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군이 대응해야 할 위협의 종류와

1) 중·일 간의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에서의 어선 나포로부터 중국인 선장의 석방까지의 과정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대립(조선일보, 2010.9.20), P. A18.

양상이 불확실할수록, 요구되는 전력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전력화가 지연되기 십상이며, 위협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군은 미래 기획이 현실화될 시점에서의 안보상황과 국내 여건, 군사과학기술 등을 예상하고, 적절한 군사력 운용개념을 조기에 판단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군을 비롯한 예하 제대에서는 상위의 미래 개념을 바탕으로 군사력 소요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면서 미래 군사력을 획득하고 있다.

본고는 미래의 군사력 운용개념 형성에 간여하는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쟁의 수행방식 즉,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우리 군의 군사력의 운용개념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연구는 군사 분야보다는 경제와 기술,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방법론이 연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기 분야에서 연구된 다양한 미래 연구를 바탕으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의 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군사력 운용분야에서의 변화 가능성의 탐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래학의 본질이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복수의 미래를 구상하고, 각각의 미래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비 전략을 수립하는 것처럼 본 연구도 하나의 미래 전쟁 패러다임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대안으로서의 한국군의 미래 전쟁 패러다임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군사력 운용개념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본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미래의 시점은 차기 군사전략서와 합동개념서의 대상 시기인 2030년경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의 2030년은 정확한 하나의 시점으로서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변화가 일반화되고 확산되어 현재의 사고와 개념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개략적으로 20여 년 정도 후의 시점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한 데이터자료를 제외한 미래의 변화양상은 정확한 의미에서의 예측이 아닌 개념적인 상황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전쟁 패러다임은 2030년경의 군사과학기술, 문명의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전쟁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출한다. 여기에 미래 한국군에 있어서의 전쟁 패러다임의 특성 추정은 안보

환경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전력운용개념 개발 시에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지형 혹은 기상 요인, 피아 전력 구성 등은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 지형이나 기상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기술의 발전에 의해 미래에는 극복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며, 피아의 전력 구성은 불확실성이 높고 군사력 운용개념에 따른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 한국군에 대한 시사점은 군사력의 운용분야에서의 변화방향에 중점을 두되,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군사력 운용개념의 특성과 중심사고에 대한 시사점 중심의 방향 제시이다. 미래에 대한 정보량의 증가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이 점차 제거되면 본 연구를 활용하여 미래의 한국군이 당면할 전쟁의 패러다임과 군사력의 운용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 미래 전쟁 패러다임 변화 방향

1. 전쟁 패러다임의 분류와 변화요인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특정분야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 법칙, 지식, 심지어 믿음이나 습관 같은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개념으로 토머스 쿤(Thomas Kuhn)²⁾이 과학의 혁명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과학의 발전이 전통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새로운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제도가 거기서 파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될 때 혁명이 일어나듯 자연과학에서도 혁명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전쟁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은 지금까지의 보편적으로 생각해왔던 전쟁 수행방식의 일반적인 수준과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나아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으로의 변화(shift)란 전쟁에 대한 사고의 변화로부터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변화되어 새롭게

2)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서울: 까치글방, 1999), pp. 33-46.

인식된 사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전쟁 패러다임에 대한 명료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전쟁 형태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에 다양한 분류가 존재한다.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단계 구분이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요인을 무엇으로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현대 국가들의 발전에 따라 전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분류에서는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매우 다른 양상으로 판단하고 있다.³⁾ 근대 이전의 전쟁은 적은 규모의 군대, 제한된 목표와 비교적 적은 양의 국가자원을 동원하여 수행된 반면 근대 전쟁은 중앙집권화를 통한 국력의 성장과 관료화, 민주주의 확산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영향력과 국가주의와 같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성장 등에 의해 대규모 군대가 투입되는 정복전쟁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전쟁 패러다임 구분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과거의 전쟁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구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쟁 수행방식과 대상에 의해 세대별로 구분하되 지금까지의 전쟁을 1세대~3세대로 분류하고, 적의 정치적 목표나 전쟁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형태의 전쟁 패러다임을 4세대 전쟁으로 분류하고 있다.⁴⁾ 토폴러(1999)는 문명의 변화에 상응하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시대의 전쟁을 제3물결의 변화에 적합한 전쟁 패러다임으로 분류한다. 제2물결과 제3물결의 전쟁 방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두 물결 간의 충돌을 제1차 이라크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도구(tool)시대, 기계시대, 시스템시대와 자동화시대로 구분하기도 하며, 전쟁의 형태에 따라서 과거의 혼전(melee)으로부터 대규모 접전(집단전), 다수의 전투력이 동시에 신속히 이동하여 수행하는 기동전, 목적에 따라 분산과 집중을 신속하게 변화시키면서 공격하는 스웜밍전(swarming war) 형태 등 4단계의 진화로 구분하고 있다.⁵⁾

3) 강창의 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3-36.

4) 하광희 외 역, 『21세기 전쟁: 비대칭의 4세대 전쟁』(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46-66.

5) Katoch, Ghanshyam Singh(2005)에서 인용. 도구에 의한 구분은 Martin Van Creveld(1989)에 의한 구분이며, 전투의 형태에 의한 구분은 Arquilla & Rondefltd(2000)에 의한 분류임

앞서의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전쟁의 큰 형태 변화로부터 전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공통적인 요인을 추출하면 크게 4가지이다. 중단기적으로 영향이 지속되면서 변화를 초래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군사과학기술과 전쟁경험이며, 추세 단절수준의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의 문명의 전환과 정치·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이다.

전투 혹은 전쟁의 양상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이다.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등장을 유발하고, 전투의 승패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로 증기기관차의 발명은 군수지원 거리의 연장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의 부대를 원거리까지 보내는 전력운용형태가 일반화되었다. 전차의 등장은 전격전이란 형태의 전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최초의 화력 지원을 위해 활용된 항공기는 성능의 발전으로 독자적인 전략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발전되었다. 잠수함은 해상교통로를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기술의 발달에 의해 전략무기라는 새로운 운용개념으로 활용되었다. 핵무기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체계의 개발은 총력전의 시대를 끝내고 제한전 형태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였다. 핵무기는 군사과학기술의 변화가 전쟁의 행태를 급격히 변화시킨 사례이다. 정보와 네트워크는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정보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정보체계 수단 자체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전이라는 새로운 전쟁방법을 발전시켰다.

전쟁의 경험은 결과가 승리이든 패배이든 관계없이 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탄생시킨다. 전쟁 수행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과 기존의 전쟁 수행개념의 문제점 및 장단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개념 등을 결합한 독창적인 형태의 전쟁 수행 형태로 발전된다. 냉전시기의 전쟁은 핵무기의 출현으로 총력전 형태가 아닌 소규모 재래식의 제한전과 분란전, 대분란전의 특성을 갖는 형태로 변화했으며, 이라크전에서의 미국의 승리는 감시정찰과 정보의 중요성, 정밀유도무기의

효과와 네트워크 기반전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각국은 미군과 유사한 개념의 네트워크 중심전 형태의 전쟁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문명의 전환은 전쟁 수행방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전쟁 양상을 출현하게 하였다. 문명의 전환단계는 농업사회,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분류한다. ‘정보화 사회’는 새로 등장한 정보통신 기기들과 이를 활용한 생산과 소비행태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생활양식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용어이다. 이러한 문명의 전환에 따라 전쟁의 패러다임도 점차 변화했다.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산업사회 시대의 기계 중심의 전쟁에서 적의 정보와 지식, 정보유통망의 파괴를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정보와 지식, 정보유통망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쟁 수행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문명의 전환이라는 엄청난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전쟁 형태는 모든 국가들의 전쟁사고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그러한 거대한 문명의 변화나 정치제도 혹은 사회적인 변화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각국가는 정치·사회 문화적 가치관이나 역사적·지리적 환경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쟁의 사고로부터 수행개념까지의 변화를 추구하며, 국가별로 독특한 전쟁 형태를 취한다. 예로는 징병제도와 민족주의는 대규모 군대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산업화된 국가들 간의 전쟁은 총력전(total war) 형태의 전쟁을 추구한 것이다.

2. 전쟁 패러다임 변화 요인별 전망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후인 2030년경에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 패러다임이 주류를 형성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다기보다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전쟁 양상 중에서 어느 것이 주가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할 전쟁 패러다임도 미래의 수많은 전쟁 양상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전쟁 패러다임 역시 전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4가지 요소의 변

화전망으로부터 얻어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전쟁 패러다임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래의 전쟁 패러다임을 예측한 결과가 아닌 하나의 대안적인 성격의 전쟁 패러다임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일수록 다양한 대안적 미래를 도출하고 그로부터 바람직한 미래를 찾아내고 설계해 나가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하나의 전쟁 패러다임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은 대안들을 작성하여 각각에 대해 군사력 운용이라는 대응방법을 구상하고 논의를 구체화함으로써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가. 군사과학기술 발전

군사과학기술과 전쟁의 상호관계는 비교적 단기적이고 명확하다. 이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전쟁의 특성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운용개념이나 전술적인 발전을 동반해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동인이 될 수 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 이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례는 매우 많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강철 제련법이나 바퀴의 발명이 거점방어 전술을 퇴보시키고 공성전략을 발전시켰다. 근대의 산업혁명 기간의 증기선과 철선, 철도망의 발명과 확대는 대규모 전력 차원에서의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1차 대전 중의 전자통신, 화기, 전차, 항공기 등의 발명은 참호전, 소모전, 기동전개념 등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2차 대전에서의 전략 잠수함, 전략폭격, 핵, 정밀유도무기 등의 개발은 전격전과 전장의 확대 등을 가져왔다.

군사과학기술 발전 관점에서 현재의 전쟁은 첨단과학의 발전을 동인으로 한 전장가시화와 전장 상황 공유, 시·공간적으로 네트워크에 의해 통합된 시스템 중심의 전쟁 수행 방식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화력·기동 중심의 전쟁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전쟁으로 변화하고 전장영역도 영토개념을 벗어나 우주 및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것은 군사과학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변화이다.

미래의 전쟁에서 핵심이 되는 군사과학기술 분야 중의 하나는 로봇과 우주 관련 기술이다.⁶⁾ 미래의 핵심 전력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우주전 수행체계(위성, 감시장비, 위성과파괴무기 등)⁷⁾와 무인체계⁸⁾일 것이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적 요소와 지원체계일 것이다. 상기 전력의 보유 여부가 추구할 전쟁의 패러다임을 결정할 것이다. 우주전력과 무인전력의 보유 유무와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 수행방법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 수단의 중심이 무인·우주 전력이 될지라도 기존의 재래식 전력도 소규모의 제한전이나 국지전에서 활용될 것이다. 재래식 무기의 정밀성, 은밀성의 증가에 따라 효과적으로는 사용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보다 멀리,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한 마비력을 갖춘 무기체계로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지나친 무기체계의 고가화는 보유 수량의 제한과 신규의 고성능 자산의 도입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동일한 효과의 저가 무기체계가 선호될 것이다.⁹⁾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의 다양성은 여러 종류의 파괴형태와 파괴수준의 무기체계를 구비하게 됨에 따라 전쟁 수행의 대상과 형태에 따라 자유로운 조합에 의한 대응이 가능한 동시 다대응 수행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활용은 각 무기체계의 활용이 전후 관계와 일정 여건조성하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에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용

6) 권재상, 『전쟁의 미래』(서울: 자작), pp. 318-335에서는 유인항공기의 진부화를, pp. 373-419에서는 우주무기체계를 포함한 우주 전략을 제시

7) 상계서, 위성과 같은 우주 전력은 현재의 공중 전력의 전쟁에서의 역할보다 더 압도적일 것이며, 이는 정찰, 정보유통과 유도무기의 무력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 중국은 2차례의 위성요격 실험을 성공하였으며,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독자적인 GP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 6번째 위성을 발사하였으며, 일본은 보안을 위한 GPS 위성을 2010년 9월에 발사하였고, 러시아는 24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세계일보, 2007.1.19, 연합통신 2010.9.12, 동아일보 2010.12.07); 주요 국가의 우주 관련 능력은 카제노마 아셀 역, 『세계 우주 클럽』(서울: 바다출판사), 2010 참조

8) 미 공군의 경우 2009년의 전투기와 전폭기 양성 조종사는 214명인 반면 무인항공기(프레데터와 리퍼) 조종사는 240명으로 무인기 조종사 양성이 유인기 조종사 양성을 초과(연합 2009.6.17)

9) 중국에서 생산한 JF-17 전투기는 구형 F-16 혹은 미그-29 정도의 전투력을 보유하면서 가격은 F-16의 반값 수준으로, 제3세계 국가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중앙일보 2010.11.20, p. 14)

하기 위한 하이퍼링크로 연결체계와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는 지휘통제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체계가 첨단화될수록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지휘통제 능력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하며, 기술과 운용 능력의 조화를 위해 신속, 정확, 적절한 지휘통제 시스템과 사용자 능력을 전쟁 수행의 중요 전력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래 전력의 핵심인 우주나 무인전력의 국가 간의 격차는 해당 무기체계의 고비용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체 위성항법체계(GPS)를 갖출 수 있는 국가는 소수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단 전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의 전쟁 수행개념은 비대칭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즉, 군사과학기술과 경제력의 격차가 심화되면 비대칭전도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전장에서는 전쟁 수행 대상 간의 군사과학기술, 경제적 차이 심화로 급조된 폭발물로부터 위성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 간 교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예로 첨단 무기체계에서 열세인 국가는 위성을 이용하거나 위성을 통하여 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나 상대국의 지상 위성 기지국이나 기반 시설의 파괴를 추구할 것이다. 때로는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도 조악한 무기체계에 무용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형태의 새로운 전쟁에서는 전쟁형태 구분의 모호, 비순차적 전투 수행, 발생 사건과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존의 대응책이 일시에 무효화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첨단 감시정찰 장비는 저비용의 기만장비에 취약하며, 첨단 유도무기도 적의 위성항법장비의 신호 교란에 정밀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은 기술 의존적 전쟁 수행 방식의 한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첨단 무기체계는 적의 대응 전술과 대응 무기체계의 개발에 의해 초기 효과가 급속히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¹⁰⁾ 정교하고 고가인 기술 무기체계에 의존한 군사력 운용은 일시에 효과가

10) 권재상 역, 『전쟁의 미래』(서울: 자작, 2001), pp. 30-49.

저하될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래전에서도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시 압도 가능한 군사기술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외성에 대비하는 준비체계가 미래에 있어서도 요구된다.

나. 최근의 전쟁 교훈

핵무기의 사용은 이전의 지배적인 전략이던 총력전 대신에 억제를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시켰으며, 이 결과로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의 전쟁 형태는 제한전의 성격을 갖고 수행되었다. 강대국들 간의 총력전 회피로 상대 적들은 비대칭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전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탈냉전 이후 탈근대시대(post-modern era)의 전쟁은 세력균형을 위한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특정 정체성을 갖는 내전, 반란전의 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¹¹⁾ 비공식 또는 비정부 행위자들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전쟁 원인과 전쟁 형태는 지속될 것이므로 미래에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이 결부된 지역에서의 이러한 형태의 전쟁을 경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냉전 이후 발생한 전쟁 중 1차 이라크전, 보스니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2차 이라크전 등의 전쟁의 특징은 우세한 전력으로도 열세한 전력을 큰 희생 없이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안정화작전 형태의 전투수행이 전쟁 수행의 상당기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은 110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미 역사상 최장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전투 희생자 수에 있어서도 안정화 단계에서의 희생자 수가 치열한 전투기간에서의 희생자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전쟁 수행 시 전쟁의 종료(형태와 방법)도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변화 중의 하나일 것이다.

미군이 최근에 수행한 전쟁에서 각 군의 역할 변화로부터 전쟁 수행방법의 변화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각 군의 기여와 역할(특

11) 강창희 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2010), pp. 30-36

히, 지상전력과 공군전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¹²⁾ 이것은 다양한 수단의 존재와 각 수단의 다기능성으로 인해 역할과 기능성이 중복되어 어떤 전력을 운용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같이 전쟁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사거리와 정확성, 화력이 대폭 향상된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지상전력 및 항공력의 상대적 역할과 관련한 갈등이 군 간에 존재하며, 이러한 대립적 상호관계는 미래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형태가 통일되게 결정되지 않고 심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의한 전력의 구분은 기능에 의한 구분으로 세분화될 것이고, 향상된 지휘통제 지원체제로 인해 단위 전력의 조화로운 통합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전쟁사례로부터의 각 군의 역할 논쟁은 오히려 영역에 의한 구분개념을 약화시키고 최적화된 전쟁 수행 시스템의 활용과 단위 기능전력 중심으로 운용되는 전쟁 수행 패러다임으로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 문명의 전환

산업사회 시대의 일상적인 생활양식과 전쟁 패러다임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문명 전환이 2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인가? 미래 사회를 묘사하는 중심어를 살펴보면 자동화면서 지능화되는 스마트 사회, 우주로의 자유로운 여행과 필요한 자원을 우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우주시대 등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많은 변화가 2030년경이면 완성되거나 여전히 진행되겠지만 20여 년이란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의 정보화 사회가 더욱 성숙해져서 정보와 지식 자체보다는 파급효과에 발생하는 새로운 경향이 이슈가 되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상되는 미래사회의 모습은 하이퍼¹³⁾·하이컨셉¹⁴⁾ 사회이다.

12) 공군전투발전단 역, 『현대전 교훈을 통해 본 지상전력과 항공력의 역할 변화』(대전: 공군, 2010), pp. 30-110.

13) 김중태, 『소셜 웹 혁신을 주도하는 하이퍼 세대』(서울: 한국경제신문, 2005), pp. 19-22.

20여 년 후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를 이용하는 산업과 사회는 정보나 지식 자체 혹은 네트워크의 연결이나 연결속도와 같은 현재의 제약을 벗어나 모든 것이 상시 연결되고 검색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며, 정보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센서나 추적 장치 등에 의해 자동으로 축적이 되는 일상적인 보통재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하이퍼·하이컨셉 사회에서는 정보화를 지나 초고도 정보화 혹은 초고도 지식사회로서 정보와 지식보다는 감성이 주도하는 사회이며, 반복적이거나 고정적인 기능보다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 예술적 가치가 더 중요시될 것이다.

하이퍼 사회의 특징은 선형이 아닌 점문화, 비순차(하이퍼 연결) 문화, 대규모의 정보 활용을 위한 자동화, 연결개발(Connect & Development), 개인의 개성 심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전쟁의 수행방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과거의 사회문명의 특징에서 변화된 전쟁 특성과 비교하여 생각하면 전쟁에서의 변화될 양상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과거 문명의 전환에 따른 전쟁의 특성을 전쟁 양상과 전장 공간, 전투 형태와 그에 따른 피해와 파괴 양상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¹⁵⁾

<표 1> 문명의 전환에 따른 전쟁 특성 변화

사회 변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하이퍼·하이컨셉 사회
전쟁 양상	육체·백병전	기계·화학전	정보·지식전	무인·스마트전
전장 공간	1차원	3차원	5차원	심리·감성영역
전투 형태	선형	비선형	비선형(소부대, 분산)	분산·하이퍼링크
파괴·피해	노획·포로	대량파괴·살상	정밀파괴·소량피해	마비·충격·혼란

대규모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자동화를 추구하는 하이퍼·하이컨셉 사회의 특징은 전쟁에서는 무인체계 중심의 스마트전의 형태로 발현될 것이다. 무인체

14) 김명철 역, 『새로운 미래가 온다』(서울: 한국경제신문, 2005), pp. 75-83.

15) 권태영 외, 『21세기 군사혁신과 국방비전: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군사발전』(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8)에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및 정보사회에서의 전쟁 특성을 인용

계를 이용하는 전쟁은 지금까지의 다른 고려 요소들보다는 효율적인 운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무인체계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전쟁에서의 과도한 살상이나 반인륜적인 행위 등에 대한 윤리적인 요구도 완화될 것이며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전쟁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것이다. 병사는 사이버를 통해 양성되어 전투를 수행할 것이며, 자동화 체계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한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최근 가상공간에서의 비즈니스나 생활영역이 확대되고 적의 공격에 의한 이 영역에서의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전장영역으로서 사이버 공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하이컨셉 사회에서의 심리·감성영역도 중요시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변화가 타 분야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전쟁이 수행되는 추가적인 영역으로 분리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정보와 지식의 공유나 검색이 언제든지 가능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지리적 제한이나 기동 등의 제약이 없다면 전투 형태를 정형화하여 정의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다. 정해진 경로만을 이용하는 전투가 아닌 다양한 전투 형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전투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무정형의 점형태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위계적인 구조가 아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필요한 전력(점)에 연결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하이퍼링크 형태의 전투를 수행할 것이다.

무기체계의 살상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던 산업사회에서는 대량파괴를 통한 적의 전쟁능력의 파괴를 추구하였으나 정보사회에서는 정밀무기의 발달과 더불어 최소한의 파괴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쟁 수행개념이 지배적일 것이다. 이러한 파괴 최소화는 적의 대응수단을 물리적으로 마비시키거나 사회나 경제 시스템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려서 대응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20여 년 후의 하이퍼·하이컨셉 사회를 문명의 전환이라 할 정도의 큰 변화로 판단할 것인지는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전쟁의 특성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새로운 사회의 변화로 판단하여 정보화 이후의 하이퍼·하이컨셉 사회를 문명의 변화로 구분하고 있다.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은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분야의 선행 변화를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변화하지만 이러한 사회문명의 변화가 전쟁 패러다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 사회문화적 변화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사고방식 차이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사고 차이 구분은 주로 사용한 기술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¹⁶⁾ 세대 간에 사용한 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세대 간의 사고방식 차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20여 년간 기업과 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인류로서 1982년 이후에 탄생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 하며 이들의 특성은 ‘권능감, 의미, 높은 기대치, 빠른 속도, 소셜 네트워크, 협력’을 특성으로 한다.¹⁷⁾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으로부터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연결해보면 실의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경험에 우선하고 권위적인 명령과 복종요구를 거부하는 특성은 집단적인 안보요구에 소극적인 반면에 개인적인 안위에 민감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가 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국가에 대한 집단적 안보의식의 유지가 더 어려워지고,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군사력의 운용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¹⁸⁾

16) 배규한, 『미래 사회학 - 미래연구와 21세기 설계』(서울: 나남출판, 2000), p. 183, 사회변동의 기본적 토대로 과학·기술을, 또 다른 축으로 성원들의 의식을 지적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통합하여 이러한 변동이 전쟁 패러다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

17) 양유신 역,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서울: 더숲, 2010), pp. 13-19.

18) 이라크전쟁은 디지털카메라로 무장하고 웹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들이 수행한 최초의 전쟁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아브그라이브 수용소에서의 포로 학대 사진의 인터넷 유포 등 전쟁에 대한 치열한 의식의 부재로 전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전쟁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세대에서나 발생 가능한 것이다.

정치사회제도의 변화도 전쟁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과거의 징병제도와 민족주의의 등장은 대규모 군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수의 병력에 의해서 포위 등의 형태로 전쟁을 수행하던 방식이 사라지고 대규모의 파괴로 생산시설과 같은 적의 기반능력을 파괴하는 형태로 전쟁을 변화시켰다.¹⁹⁾ 비정부 기구의 역할과 비중의 증가 추세에 따라 전쟁 수행개념에 있어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전쟁 관련 정보의 공개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여론의 향방에 따라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의 목적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군이 수행하고 있는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적들이 추구하는 전쟁방식에 의한 결과이며, 이것은 소위 4세대 전쟁²⁰⁾ 혹은 민간전쟁²¹⁾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초국가 및 비정부 기구와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여론의 영향력 증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방형 전쟁 수행체계²²⁾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변화는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 의해서도 촉진된다. 적의 전쟁행태에 관계없이 선진 국가의 전쟁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형태로 수행되어야 전쟁의 목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로운 무기체계가 발명되어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개인의 안전성 강화 경향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무기체계와 운용개념이 변화한다. 선진국에서의 초고령화와 인구수의 감소 또한 전쟁의 형태 결정에 영향을 준다.²³⁾ 인구감소로 인한 개인 인명 중시 경향은 무인전력의 확대, 원격 교전과 그에 따른 스마트 지휘통제 능력을 활용하는 전쟁 양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또한 적의 인명도 중시해야 하는 전쟁 수행형태 요구는 물

19) 강창희 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2009), pp. 21-23.

20) 하광희 외 역, 『21세기 전쟁: 비대칭의 4세대 전쟁』(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295-317.

21) 황보영조 역, 『전쟁의 패러다임: 무력의 유용성에 대하여』(서울: 까치, 2008), pp. 19-30에서 제시된 민간전쟁은 ‘war among the people’을 번역어로 전쟁이 군인과 민간의 식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적을 발견하고 제압해야 하는 특성을 강조한 전쟁 수행개념

22) 전쟁 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사건의 정당성, 여론, 요구 등에 대해 검토, 분석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

23) 손민중 역, 『100년 후』, (서울: 김영사, 2010), pp. 78-98; 노훈 외, 『국방정책 2030』(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189-197.

리적인 대량파괴를 지양하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시키면서 구성원 개인 혹은 사회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감성영역의 제한을 통해 전쟁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강조될 것이다.

3. 미래 전쟁 패러다임 변화

가. 미래 전쟁 패러다임 변화 특성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문명의 전환, 사회문화적 변화와 최근의 전쟁경험의 전망 결과와 파급효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2030년 경의 전쟁 패러다임의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현재와 미래의 전쟁 패러다임 특성 비교

영역 구분	2010년대	2030년대
전쟁 원인/목적	이념, 민족, 종교, 영토, 자원	종교, 영토·의식, 경제, 환경, 공익
전쟁 영역/대상	공지해 + 사이버, 테러단체	우주, 경제, 감성, 대중여론, 지도체제
전쟁 수행 핵심 요소	파괴력, 대규모 병력, 신속성, 물리적 특성, 합동성	정밀성, 무인자율능력, 지휘통제, 심리적 특성과 고도의 전문성, 통일성 ²⁴⁾
전쟁 수행 양상	전면전, 반란전,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민간전쟁 일반화, 유인/무인전, 로봇전, 위성/대우주전
핵심 키워드	네트워크, 정보, 정밀유도, 장거리, 기술위주, 순차적	문화, 지식, 감성, 인명위주, 비살상, 우주 우세, 하이퍼(비순차적), 불확정적

전쟁의 목적이나 원인으로서의 종교와 영토와 같은 기존의 상호 분리와 대립은 지속되면서 경제와 환경처럼 생존과 번영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전장 자체의 특징 변화는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한 무기체계가 초래하는 변화보

24) 구성 개체인 단위전력은 국지적으로는 자율적인 지휘결심에 의해 수행하지만 전체 전장에서의 역할과 일치되도록 수행

다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2차적인 변화에 기인한다. 그리고 변화는 현재의 전쟁 패러다임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강조되는 형태로의 점차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030년의 문명적인 특성인 하이퍼·하이컨셉 사회의 영향에 의해 감성, 인명 위주의 비살상전이 전쟁 패러다임의 중심일 것이다. 대립 국가 혹은 대립 세력 간의 비대칭성 전쟁 형태가 주류로서 대규모의 재래적 형태의 대립보다는 앞서 논의한 민간전쟁 형태의 전쟁이 주가 될 것이다.

전쟁의 수단측면에서는 무인화와 자동화, 영역측면에서는 우주전장화가 중심이 되는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전쟁 형태 전망

전쟁 패러다임이라는 큰 개념의 변화에 따라 전쟁 수행은 동시에 다수의 전투가 발생하되 비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의 전쟁 형태는 동시에 다수의 지역에서 전투가 발생하지만 전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를 설정하고 하부의 목표부터 순차적으로 완료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 그러나 하이퍼링크의 개념을 전쟁 수행에서 구현한다면, 계획된 목표의 달성이나 충분한 여건의 조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외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력의 대립상태는 선형 혹은 비선형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비정형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즉, 전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주 전력의 대립지역이나 지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만 선형 혹은 비선형 형태로 대립할 것이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탐지나, 정찰의 범위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으나 전력 운용에 있어서의 신속성과 기만 등의 확대는 전장에서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미래에서 다수의 전쟁이 민간전쟁 형태로 수행될지라도 국가 간의 전면전이나 분쟁도 지속될 것이나,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형태는 변화할 것이다. 국가 간의 전면전 수행의 형태는 고도화된 산업이나 경제·사회체제는 전쟁의 파괴에

의한 상호 간의 취약성 때문에 국가 경제 체계의 피해나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군사과학기술에 의해서 가능한 전쟁형태가 될 것이며, 전략자산 혹은 소규모의 특수전력에 의한 적의 핵심 능력²⁵⁾ 통제를 통한 의지 강요가 우선될 것이다. 전쟁 수행을 위한 상대의 전략자산에 대한 제압이 실패하거나 적이 불복종하는 경우에서의 전면전 형태는 무인전력에 의한 원격교전과 정밀성과 비살상 능력을 갖춘 첨단전력 간의 교전이 중심이 될 것이다.

재래식 대규모 전면전에 의한 상호 간의 위협 증대는 오히려 소규모의 분쟁 형태의 전쟁의 발생빈도를 높일 것이다.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 수단 외의 방법이 우선되겠지만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군사력의 격차가 크다면 물리적 수단이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한정된 영역에서의 분쟁은 유사한 위협수단 간의 교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국가가 보유한 최첨단의 자산이 동원되어 복합적으로 교전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우주영역과 여론·의지 등 심리전의 대상인 감성영역에서의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은밀한 교전이 우선시 될 것이며, 비살상과 비물리적 자산에 의한 무형 자산의 핵심능력을 통제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국가의 경제적 위상 상승과 국민의 인명중시 사고 고취로 국내외에서의 재난, 테러에 의한 직간접 인명과 국익에 대한 피해에도 군사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국가 단체에 의한 위협이나 비군사적 행위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는 전쟁 수행형태는 인접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련 비군사 조직에 대한 정보 획득, 상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형태이어야 하며, 무력의 사용은 특수전력 운용에 따른 은밀성, 비살상, 피아 피해최소 원칙에 의한 첨단 작전으로 수행될 것이다.

25) 전쟁 지도능력, 전략 자산(위성, 감시·정찰·정보·전자전 능력, 네트워크 등), 공중/해상 경로 등 물리적 자산의 이동경로, 정보·지식 및 금융 등의 무형 자산의 연결/정보체계가 무력화의 우선 대상인 핵심능력

Ⅲ.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 전망

1. 한반도의 안보 환경과 여건

한국군이 당면할 미래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²⁶⁾은 앞서 논의되었던 일반적인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여건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미래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특수성은 미래의 위협과 같은 외부의 안보환경과 경제·사회 변화와 군사과학기술의 수준과 같은 국내 여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과 여건에서의 우리의 의지와 정책적 결정이 미래 우리 군의 군사력 운용개념을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안보환경과 여건을 전망한 후 이를 고려한 전쟁 수행 패러다임을 도출한다.

2030년경의 안보정세와 대내 여건의 전망과 군사에 대한 영향은 2009년에 수행된 『국방정책 2030』 연구보고서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²⁷⁾ 안보환경으로는 동북아와 그 너머서의 국가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인 신중 위협을, 국내 여건으로는 과학기술, 저출산 고령사회, 경제적 문제, 사회의 네트워크 문화, 참여민주주의와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확대와 도시지역화 추세 등에 따른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군사에 대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고려하는 전쟁 수행 패러다임 변화의 동인보다 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전망과 국방에 대한 영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안보환경과 국내 여건은 상기의 연구결과를 준용하고자 한다. 단지 상기 연구에서 제시된 전망에 낙관적 상황과 비관적 상황을 추가하였다. 한국군이 미래에 취할 수 있는 전쟁 수행 패

26) 20여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과 지정학적 요인의 변화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군이 수행할 전쟁의 사고가 일반적인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거나 파격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군의 전쟁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대신 일반적인 전쟁 패러다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사고의 변화를 강조하여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으로 표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은 일반적인 전쟁 패러다임과 다르게 미래의 한국군의 안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27) 노훈 외, 『국방비전 2030』(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49-242.

러다임은 안보환경과 여건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서의 군사력 운용개념과 발전방향은 다양한 가능성의 검토과정에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 안보환경

미래 안보정세의 다양한 전망 중에서 미래 군사력의 규모와 운용개념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발생 가능한 위협형태에 대한 전망이다. 물론 구체적인 위협을 구성하는 전력의 규모와 종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대응전력의 구성과 운용개념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용이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위협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예측은 오히려 대응가능 능력분야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상기 연구 결과의 전망에 따르면 <표 3>의 3번째 열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위협은 후계체계에 따른 불안전성의 지속과 주변국과는 경제적인 협력과 동시에 영토를 포함한 정치적 갈등이 혼재된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표 3> 안보환경 전망

종류	낙관적 전망	현 추세 유지(전망)	비관적 전망
주변국	주변국가와의 공동 번영 평화체계 구축	일부 국가와의 국지적 분쟁, 군사능력 현시, 북 급변사태 시 개입, 우주전력, 해공군 첨단전력 위협	잠재위협국들의 호전성 증대, 심각한 수준의 분쟁, 국익보호를 위한 총력전 수행
북한	북한과의 평화체계 구축, 군사적 관심 축소	북한의 현 상황 지속, 후계체제 변화, 핵/탄도미사일 위협, 특수전 부대	북한의 WMD, 비대칭 전력 위협 증대/관리능력 미확보

향후 20여 년간의 위협은 북한 및 주변국의 핵무기의 생산 증대와 확산, 중국의 패권 추구, 세계 도처에서의 종교분쟁과 민족분쟁, 자원확보, 기후변화와 에너지 갈등뿐만 아니라 군사외적으로도 국가 간에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구

동태 문제(부자국가의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주변 저개발국가의 인구 증가)가 위협의 하나로 전망된다.

낙관적인 상황으로 안보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은 첨단 군사과학기술 위주의 정밀유도 및 우주전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경제 선진국 간의 전쟁 수행 행태는 첨단 자산을 이용한 상대의 첨단전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쟁 수행 방식이기 때문이다. 비관적인 안보환경에서의 전쟁행태는 현재 가정되고 있는 전쟁 수행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첨단 전력에 의한 순식간의 제압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 군사과학기술 여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직접적으로는 무기체계의 성능개선으로 군사력 운용의 융통성을 증진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와 군사력 운용의 본질적인 성격을 바꾼다. 민간 분야에서는 2030년경이면 무인 로봇, 우주와 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용화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²⁸⁾되고 있으며, 군사분야에서는 민간 분야에서의 예상시점 이전에 전장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표 4〉 군사과학기술 여건 전망

낙관적 전망	현 추세 유지(전망)	비관적 전망
스텔스/무인기술/정밀무기/우주 통제자산 개발, 저비용 고효과 무기개발, 사이버전 능력 확보	주변국 대비 비대칭무기기술 일부 확보, 무인/로봇 무기, 정밀유도무기 사이버전 대응/부분공격 능력 확보	무기기술 종속심화, 도입예산 증가, 주변국 최신기술 극복 기술 미확보, 사이버전 능력 미확보

무인·자동화전과 비살상·정밀전의 수행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군사과학기술의 확보를 통해 우주무기, 정밀무기와 로봇, 사이버전에

28) 일본 과학정책기술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미래에 실용화될 과학기술로는 2027년이면 농경작 로봇을 이용해서 농업이 완전 자동화가 될 것이고, 2035년이면 자동운전 자동차가 실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38년이면 화학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항공기가 실용화되고 2039년이면 달에 유인 우주기지가 개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매일경제신문, 2010.8.24)

대응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에 제시된 무인기와 정밀유도무기 분야에서 한국군도 일부는 독자적인 기술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⁹⁾

그러나 만약 첨단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확보가 일정 수준 불가능한 경우는 비대칭 전력중심의 특수전 형태의 전쟁 수행개념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경제·사회적 여건

주변국과의 경제적·군사적 격차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기 축적된 기술, 중국의 대규모 인구나 생산능력 등 주변국은 고정적인 성장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의 전력증가 추세와 누적된 군사비 지출 규모면에서의 격차는 매우 크다. <표 5>에 제시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력 지출의 규모의 격차비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더욱 확대되는 구조다.

<표 5> 경제·사회적 여건 전망

	낙관적 전망	현 추세 유지(전망)	비관적 전망
경제적 여건	경제성장 지속, 조선진국가 진입, 국가위상에 적합한 수준의 국방비 확보, 일본수준의 경제규모 확보	주변국 대비 상대적인 성장 한계, 국방비 지출규모 차이 확대(GDP 비중 2% 확대되나 중국의 GDP 비중의 31%로 격차 심화 예상)	현 수준(세계 GDP 비중 1.8%, 세계군사비 대비 1.9%로 중국의 39.6% 일본의 52.8%) 이하 유지로 격차 심화
사회적 여건	국가안보의식 증가, 출산율 증가로 병력자원 증가, 노동유입인구 증가	병력자원 감소, 초고도 노령화 사회, 국가안보의식 저하, 안정된 사회유지	개인 안보 우선, 병력자원과다 감소, 경제인구 감소, 복지요구 증가

미래 한국의 사회적 여건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군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따라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으로의 급속한 전환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여건은 한편으로는 높은 교육수준, IT 활용의 대중화, 네트워크 기반 구축과 높은 활용 능력 등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어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긍정적이나 세대 간의 문화 차이 심화, 경직된 사

29) 국방과학연구소, 『2003 국방과학기술 조사서』 제1권(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003), p. 45

회 및 수직적 지휘통제 문화, 집단지식 문화의식 보급 미흡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한다.

군사비 확보를 위한 경제적 여건은 주변국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으나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창출과 전환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좋게 전망되고 있다. 비관적 상황에서의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은 다른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비관적인 여건에서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한국군에서의 시사점을 군사력 발전 방향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 본고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변화 방향만을 제시하지만, 미래 군사력의 발전 방향은 낙관적인 여건과 비관적인 여건에서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과 한국군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 전망

가. 전쟁 수행 패러다임 변화 방향

미래의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을 종합하여 보면 미래의 한국군은 특수전 위주의 재래전을 수행하려는 열세국가의 위협과 우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비용의 첨단전을 강요하는 우세국가의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여건의 전망으로부터 한국의 대응방향을 종합해보면 주변국과 잠재위협에 대해서는 경제적 및 사회적 열등요소를 극복하면서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상황과 대응개념을 새로운 전쟁 수행 패러다임에 반영하되 한국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과 유럽의 군사선진국이 취하는 형태의 전쟁 수행개념 대신 미래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전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반란전 혹은 전면전 이후의 반란전 등 새로운 형태 혹은 혼합형태의 전쟁 유형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유연한 전쟁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인력 부족으로 인한 가용 병력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쟁 수행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첫 번째 대안은 병력 1인당 전쟁 수행 능력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인적자원의 우수성에 기반을 둔 우수한 병력과 첨단무기의 효과적 결합을 통해 양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첨단 플랫폼 위주의 기술 중심의 전쟁 수행에서 인적 요소에 의한 상승 효과가 중요시되는 지휘통제 중심으로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잠재 위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력 위주의 군사력 간 전쟁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쟁 수행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미래 한국군의 경제력 및 군사력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미래의 첨단 체계를 일시에 제압할 새로운 우주전력과 무인전력을 확보하여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첨단 전력에서의 열세인 분야에 대해서는 군사선진국과의 동맹전력을 활용하거나 비대칭 형태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을 활용하여야 한다.

〈표 6〉 한국군의 미래 전쟁 수행 패러다임 특성

영역 구분	한국군의 미래 전쟁 수행 패러다임 특성
전쟁 원인/목적	국가생존과 국지적 영토 분쟁 혼재 (정권유지, 이념; 경제(자원), 영토, 환경, 명분, 공익)
전쟁 영역/대상	권익/이익권, 우주, 대중여론, 지도체제
전쟁 수행 핵심요소	물리적 피해 최소화, 무인화·자동화 능력, 지휘통제, 심리적 특성과 고도의 전문성, 융통성
전쟁 수행 양상	재래식 정규전, 민간전쟁, 비대칭전, 특수전, 유인/무인전, 로봇전, 위성/대우주전
중심 키워드	문화, 지식, 감성, 인명위주, 비살상, 우주 우세, 하이퍼(비순차적), 불확정적

미래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 특성을 일반적인 전쟁 패러다임에서와 동일한 범주로 대비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미래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

다임은 한국의 안보환경과 경제·사회적 여건 때문에 2030년경의 일반적인 전쟁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현재의 전쟁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쟁원인 측면에서의 변화 특성은 정권유지와 이념을 달리하는 위협과 자원이나 환경 등의 경제적 이익과 영역의 상충으로 인한 소규모 위협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쟁 영역에서의 특성 차이는 우주자산과 우주 영역을 포함하는 제 국가의 권익이 존재하는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여론과 지도체제에 대한 타격 등을 목표로 비물리적 혹은 가상 영역까지 확대된다.

전쟁 수행 시 핵심요소는 첨단 기술 및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와 선진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포함한 물리적 피해의 최소화의 추구일 것이다. 이것은 상대국가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전쟁 윤리의 적용이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인화 전력에 의한 전쟁 수행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동화 능력과 지휘통제 능력을 중요시하는 전쟁 수행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기동과 화력 능력보다는 전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한 지휘통제 능력이 전쟁 수행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인화 전력을 이용한 전쟁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적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또 전력운용에 있어서의 융통성이 자동화된 시스템 간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전쟁의 양상은 미래의 일반적인 전쟁 패러다임을 따르겠지만 미래의 위협대상을 고려한다면 재래식 전력과의 정규전 형태의 전면전의 가능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특성을 대표하는 중심적인 키워드는 미래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여 비순차적 문화와 감성 중심의 인명중시 등이 될 것이다.

미래의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위협 대상의 전쟁 수행 능력과 방법뿐만 아니라 수단측면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미래의 환경과 여건뿐만 아니라 위협 상대의 불확정성에도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취할 수 있는 있는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협 대상별로 전쟁 수행 패러다임을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나. 위협 대상별 전쟁 수행 패러다임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 패러다임을 위협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한국군이 취할 수 있는 전쟁 수행 패러다임의 형태가 한정됨에 따라 각각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구체화할 수 있다. 물론 미래 위협의 발생 가능성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위협 대상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인 능력에 의해 대응해야 할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을 구분한 후에 종합하여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군사기술·군사력 측면에서 상대적인 우세국으로서, 가용 자원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의 첨단전력으로 양적 규모를 질적 수준으로 압도하는 스마트화된 전쟁 형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전된, 선진화된 국가로서 사회의 인명중시 요구에 따른 인명손실 최소화와 경제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전쟁의 조기종결이 가능한 전쟁 수행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우세한 장거리 정밀 화력과 우월한 정보력으로 근접전투가 아닌 원거리에서 산개된 전투를 수행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의 전쟁의 수행을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전쟁 수행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적의 핵심전력 제압을 통해 의지 강요를 추구하는 마비전 위주의 전쟁 수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압 불가 시에는 전략적 및 작전적 측면에서의 우위 전력 - 무인 원격 통제 전력, 로봇, 감시정보정찰 자산, 정밀유도무기 등 - 을 이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형태가 적절하다. 반란전이나 민간전쟁 등 4세대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 방안으로 한국군의 병력자원의 우수성에 기반하여 단일병과가 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환과 같은 운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열세국 위치에서, 특히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등 우주자산에서 열세한 상황이므로 인력 중심의 재래식 특수전 전력과 무인전력 등을 우리의 장점으로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수용이 필요하다. 즉, 한국군

의 전략자산을 방호하면서 잠재위협국의 첨단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전력으로 비대칭전략을 수행하는 전쟁 패러다임의 적용이 요구된다.

주변의 잠재위협국의 군사적 위협 외에도 국가의 발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영역의 확대와 각국과의 네트워크 연결의 증가 등에 따라 주변국이 아닌 국외에서도 군사력의 역할이 증가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2009년의 예멘 관광객사망과 피랍, 한국의 대응팀 피격, 2010년 한국석유공사 송유관 파괴 등과 같은 유사한 위협에 대해 사회의 요구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국가와의 협력강화 등을 통한 비군사적 해결이 가장 주효할 것이나, 타 국가와의 연합에 의한 국제협조 체계하에서의 독자적 군사작전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전쟁 수행방법도 한국군의 새로운 전쟁 수행 패러다임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IV. 한국군에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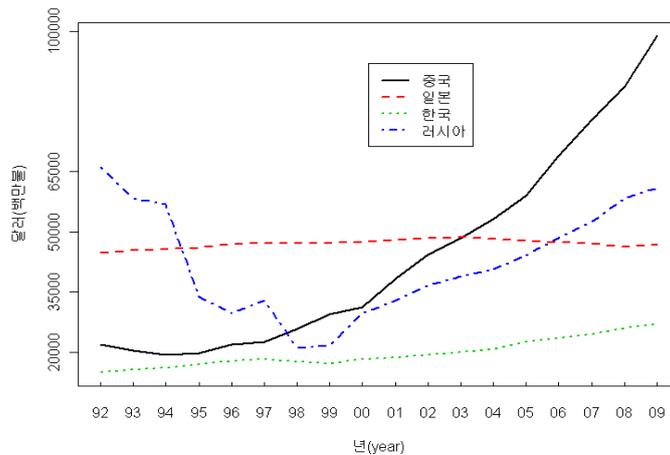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는 군사력 운용개념으로 표현되며, 운용개념은 미래 군사력 건설의 지침이 된다. 본고는 전쟁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따른 군사력의 운용개념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군사전략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그렇지만 군사력 운용방향 설정에 필요한 위협에 대한 판단과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군의 미래 군사력 운용에서의 시사점을 군사력 운용 시의 특성과 중심사고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위협관리 중점 변화 방향

군사력 운용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위협을 참조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2030년에도 북한 위협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북한 위협의 지속에 반하는 결정

적인 단초가 아직 부재하다는 것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군사기획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도 북한과의 전면전과 잠재 위협국과의 분쟁을 동시적 위협으로 고려한다.

미래 시점의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위협에 대한 평가이므로 주요 무기체계나 장비의 비교보다는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각국의 군사비 지출에 의한 비교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위협의 규모를 판단한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는 변화추세로 볼 때 미래에 보다 확대될 것이며, 따라서 북한 무기체계가 고기술의 첨단전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의 전면전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혹은 비대칭전력 위주의 능력을 확대해 가면서 군사력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주변국의 위협은 고가의 첨단 전력 중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한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림 1〉 주변국의 군사비 지출규모 변화

주변국가와의 군사력 격차는 <그림 1>에서의 지금까지의 군사비 지출³⁰⁾ 규모의 차이에서 추정할 수 있다. 2009년 중국의 군사비 지출규모는 한국에 비해

30)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09년 불변가 달러화 기준(단위 백만 불), www.sipri.org/database/milex, 2010.9.10

3.6배이며 과거 18년간 누적 규모로 보면 2.3배이다. 러시아는 한국에 비해 2.2배, 일본은 1.7배 이상으로 2009년 한 해의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누적 지출 규모 차이도 너무 커서 앞으로의 군사비 지출을 증가한다 할지라도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순히 군사력이라는 격차에서 보면 북한과의 차이는 감소할 것이나 주변국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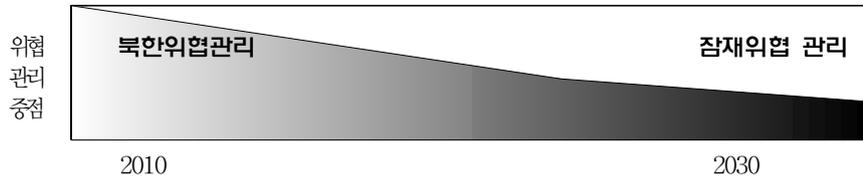
북한과 주변의 잠재 위협국과의 군사력 차이에 대한 군사전략 차원에서의 대비는 위협수준이 높은 현존 위협과 대비능력이 부족한 미래 위협에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둘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미래의 군사력 운용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국가·군사전략 차원의 결정에 의해, 다수의 위협에 대한 대응 중점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군의 경우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여 대비의 중점을 변경하고 있다.³¹⁾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면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증대와 전면전 가능성 감소를 예상하거나 주변국의 분쟁 위협은 통일기로 접어들수록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천안함 폭침 이후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재판단 등을 통해 침투와 국지도발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³²⁾

그러나 현시점이 아닌 2030년 시점에서의 한국군의 능력과 한국군이 상대할 위협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점차적으로 대북 위협 중심의 관리 위주에서 잠재적 위협 중심 관리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력 운용의 결정요인의 하나인 위협에 대해 지금까지의 단순한 위협의 대상과 크기 중심에서 미래 시점에서의 한국군의 위협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규모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비능력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2030년에는 위협관리의 중점을 지금의 북한 위협 중심에서 잠재위협 관리로 이동해야 할 것이다.

31) 미국의 2001, 2006년 4년주기 방위전략 검토(QDR)에서는 위협의 형태를 정규적, 비정규적, 재앙적, 파괴적 위협 등 4개 범주로 구분하고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1-4-2-1', '2개의 전장의 동시 대비' 등의 개념 제시

32) “북 위협에 초점 맞춰 전력증강안 변경” (동아일보 2010.4.21), p. A01



〈그림 2〉 북한 위협과 잠재위협 관리 중점 변화

미래 한국군의 전략개념은 북한 위협 대비전력의 우선적 확보에서 동시대비 전력의 우선적 확보로 전환하여야 하며 북한 및 잠재위협에 대해 보다 공세적인 개념으로의 적극적 억제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사회의 약점인 폐쇄성과 체제의 불안정성을 자극할 수 있는 비대칭전략을 개발하고, 군사적으로는 우세한 우리의 군사력 건설능력을 이용하여 우리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북의 대비방향을 강요하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개념하에서 미래 군사력 운용개념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한국군의 군사전략 기저는 “억제 실패 시 단기간 내 적을 격멸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군사전략 목표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세로의 이전 능력을 필요로 한다. 국지 도발 시는 가용 합동 전력으로 최단 시간 내 적을 제압하는 수준 이상에서 즉응보복전략 개념에 입각한 보복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확보와 현시를 추구해야 한다. 잠재위협에 대해서는 미래 국방의 역할에서 요구하는 국익보호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방의 관심지역을 확대해야 하며, 잠재위협에 대비한 전장 권역 구분을 한반도로부터의 거리 개념이 아닌 국익 관련지역으로 대응능력 확보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군보다 양적 및 질적 수준에서 우세한 잠재위협국과의 분쟁임을 고려하여 거부적 방위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상대국의 압도적인 전략자산과 첨단시스템(위성통신, 위성항법시스템, 정밀유도무기, 해양 전력 등)에 의한 한국군의 마비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개념 수립이 선행되어야 군사력 운용개념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비국가에 의한 위협이나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익 및 국민의 권익 확보

와 보호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실질적 역할을 중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는 미래의 열세국가, 우세국가 및 비국가 등 제 위협의 주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2. 군사력 운용 특성 변화 방향

미래 군사력 운용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사고의 하나는 미래의 군사력 운용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 한국군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하에서의 군사력 운용개념 적용 시 강조되어야 할 분야는 인명중시, 전력의 융통성, 자율적·분산·분권 지휘통제, 무인화, 우주활용, 비순차성 접근방법의 활용이다. 전쟁형태 측면에서는 재래식 전쟁과 첨단전쟁, 정규전과 특수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전쟁형태 동시수행능력이 요구된다.

미래 군사력의 운용 특성 중의 하나는 개별 플랫폼의 향상된 물리적 네트워크 능력의 활용의 극대화이다. 첨단화된 정보수집과 전파 능력, 고속 기동 능력, 정밀성과 치사성이 증대된 화력 능력, 그리고 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방호 체계 등 향상된 플랫폼 중심의 물리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활용의 극대화는 네트워크 연결량이 아닌 활용관점에서의 정보·지식체계의 운용능력에 있다. 미래 군사력 운용은 플랫폼 개개의 능력보다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통합된 능력의 발휘 가능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전력의 융통성, 적응성과 강건성³³⁾ 구비가 필요하다.

결국 미래 군사력의 핵심은 유연하고 준비된 지휘통제 능력의 발휘에 있고 이것은 지능화된 플랫폼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운용체계가 자동화 및 지능화된 지휘통제 체계와 분권화 및 자율화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에 한국군이 확보 가능한 무기체계의 수준³⁴⁾에 맞는, 무기체계의 특성을

33) 융통성: 급속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적응성: 다양한 유형의 작전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유연성), 강건성: 다양한 형태의 작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모든 형태의 작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취할 특성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개념을 구상하여야 한다. 무기체계의 정밀성과 은밀성은 여론이나 비국가단체의 전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의 최소화와 단기간화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물리적 파괴와 인명살상 최소화 특성은 전쟁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고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의 유도를 가능하게 한다. 무기체계의 장시간 작전능력과 신속화는 원거리에서의 원격조종에 의한 전력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비용감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익보호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미래 군사력 운용 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은 공통성이다. 공통성은 무기체계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넘어서 운용의 일반화와 공통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체계를 연결하여 운용성을 높이려는 현재의 시도에서 다른 체계 간일지라도 공통으로 갖는 특성을 높여서 자연스런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이다.

소규모의 군사력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운용을 위해서는 융통성과 유연성의 특성을 갖는 운용개념이어야 한다. 융통성은 작전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고, 유연성은 다양한 유형의 작전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 가능한 능력이다.

디지털화와 최적화를 추구하는 미래에서의 방향과 역행되는 개념이지만, 미래 군사력의 운용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은 가외성이다. 효율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최적화가 판단의 중심이 되면서 여분의 감소로 인해 군사력의 운용에 있어서 의외적인 요구에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 군사력 운용에서 만큼은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가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군사력 운용에 필요한 특성은 상호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동시에 확보되거나 혹은 결여 시 의외의 상승효과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군사력 운용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4) 노훈 외, 『국방정책 2030』, p. 143의 ‘우리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방의 응용 가능성’ 참조

3. 군사력 운용 중심사고 변화 방향

군사력 운용 중심사고는 군사력 운용개념의 지향 방향을 제시하여 최단거리에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이정표와 같은 중심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수의 방법들 중에서 취하고자 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서 2010년에 발간한 합동개념서는 2012~2026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합동개념의 활용 제고를 위해 평문과 비문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다.³⁵⁾ 합동개념서에 제시된 군사력 운용 중심사고는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 “자식기반체계”, “효과중심의 작전체계”와 “동시·통합작전”이다. 이러한 중심사고는 군사력 운용의 역할에 합당하게 군사력 운용의 핵심 기능과 사고, 지휘통제 체계, 주어진 군사력을 운용하는 작전 계획의 중심사고와 전력운용의 중점의 4가지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력 운용의 핵심과 기능 수단을 네트워크 중심으로 작전을 기획하되 지휘통제체계는 지식기반 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작전기획은 효과중심의 작전체계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동시·통합에 의한 작전 구현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력 운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은 합동개념서의 중심사고를 분류하여 표기한 후, 미래 전쟁 패러다임에서의 군사력 중심사고를 동일한 범주에 기술하였다.

2030년의 미래 전쟁 패러다임에 따르는 군사력 운용의 핵심 기능과 수단은 더 이상의 물리적 네트워크의 강조가 아니며 운용의 지향방향 또한 아니다. 모든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구조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비순차적 연결과 동적 검색지원이 가능한 하이퍼링크 체계일 것이다.

지휘통제 체계는 지식 기반이라는 큰 틀에서 운용되겠지만 일반화된 개념이고 이슈는 전쟁에서의 지식축적도 사회에서의 지식축적방법처럼 자동화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슈이며, 이러한 자동화기술의 활용에 의해 모든

35) 합동참모본부, 『합동개념서 2012~2026』(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p. 48에서 “네트워크중심 작전환경하에서 지식기반체계와 효과중심작전체계를 기반으로 합동전력을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하여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개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감시정찰정보가 지식으로 축적될 것이다. 무인화에 따른 자동화와 신속한 운용을 위한 자율적이고 분권화된 지휘통제 체계에 의해 군사력이 운용되어야 한다.

〈표 7〉 군사력 운용 중심사고

범주 구분	합동개념서	미래 전쟁 패러다임	비고
핵심기능/ 수단	네트워크중심 작전	하이퍼링크(비순차적 연결 및 동적검색지원) 기반 작전	네트워크 구비 완료 연결의 양적 과다를 질적 효과로 향상
지휘 통제	지식기반체계(공동 상황인식 가능 체계)	자동화·자율형·분권형 작전수행(지휘통제)	지식기반 일반화 지식의 축적방법(집단지성)과 조직문화(하이컨셉)가 중요
작전 계획의 중심사고	효과중심의 작전체계	하이퍼파워 지속·극대화	전쟁의 수준, 형태, 시기 등의 혼재로 단순한 ‘효과’ 도출 불가 다수의 전투에 적절하고 강력한 전투능력의 집중
전력 운용 중점	동시·통합작전	민첩·유연·조화능력 기반 작전	통합성 요구사항 축소(다수의 중심존재, 총력전 개념 축소) 생존성을 위한 민첩성, 다목적 작전수행능력 강화 필요

작전계획의 중심사고를 살펴보면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효과에 기반한 사고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수준, 형태, 시기 등이 혼재되어 있는 미래의 전쟁 수행 패러다임에서는 효과라는 단순한 한 가지 사고기준으로 작전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작전 능력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하이퍼 파워에 있으며 작전기획 수립의 이슈는 어떻게 그러한 파워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하이퍼 파워의 극대화와 지속능력에 기반한 사고가 작전계획의 중심사고이어야 한다.

작전기획의 구현단계에서의 전력운용 시의 중점인 동시성과 통합성은 미래에도 추구되어야 할 개념이다. 동시성과 통합성은 일정 단위로 세분화되고 기능이 구분된 군사력 운용 시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래 전쟁 패러다임 관점에서 보면 비순차적 운영에 따른 다수의 중심이 존재하고 총력전의 형태보다는

핵심능력 간의 단기전 형태가 다수가 되므로 통합성보다는 분산된 군사력의 생존과 다목적 작전수행능력이 가능한 민첩성과 유연하고 타 기능과 결합하여 작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화성이 요구될 것이다.

V. 결론

바로 앞의 적의 도발에 대한 예측과 판단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20여 년 후의 한국군이 적용해야 할 전쟁 패러다임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의 특정한 능력이 현실화되기까지의 구축 절차와 시간을 들여다보면 20년 후의 미래 모습을 예견해야 하는 것이 그저 먼 미래의 공상영화와 같은 막연한 느낌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차기에 발간할 군사전략서와 합동개념서는 2030년 이후까지의 군사력의 발전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획문서가 장기간의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현실의 위협에 최적인 군사력의 확보에 치중하다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군사기획은 항상 장기와 중단기 간의 전력건설에 적절한 균형을 갖춰야 한다.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협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군사력 운용개념의 연장선상에서의 사고로 미래 군사력의 범위를 좁혀서는 안된다. 그러나 미래의 전쟁 수행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면, 현재의 사고로 미래의 위협을 대비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의 군사과학기술의 변화나 사회문화적 요인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고, 이러한 변화가 군의 역할과 수행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군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나에 집중하여 최적화시켜서도 안된다. 미래의 전쟁 패러다임과 군사력 운용개념을 탐구하여 다양한 미래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0년 후의 미래에는 과거에 인류가 행한 것처럼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

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와는 다른 도구와 수단이 존재할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상상 속에서만 있던 그리고 일부만이 사용하던 도구들이 보편화되어 한국 사회의 모습과 사고를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수행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위성 파괴를 비롯한 우주전, 로봇의 활용을 비롯한 무인체계와 자동화전, 감성영역으로의 영역 확대와 민중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전쟁 등 새롭게 등장할 전쟁의 패러다임과 그에 따른 군사력의 운용개념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

2030년경의 군사력 건설까지에는 2015년의 전시 전작권의 전환과 2020년의 국방개혁이라는 안보에 있어서의 큰 전환점을 지나쳐야 한다. 2030년경의 관점에서 보면 중간점인 두 시점에서의 군사력의 건설 방향이 어디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위협과 미래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배비의 배분, 그리고 미래의 위협과 현재의 위협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군사력의 건설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논문 접수 : 2010년 12월 14일
 논문 수정 : 2011년 1월 4일
 게재 확정 : 2011년 1월 5일

참고문헌

1. 강창희 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2010).
2. 국방과학연구소, 「2003 국방과학기술 조사서」 제1권(대전: 국방과학연구소, 2003).
3. 공군전투발전단, 『현대전 교훈을 통해 본 지상전력과 항공력의 역할』(대전: 공군전투발전단, 2010).
4. 권재상 역, 『전쟁의 미래(The Future of War)』(서울: 자작, 1996).
5. 권태영 외, 「21세기 군사혁신과 국방비전: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군사발전」(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8).
6. 김명철 역, 『새로운 미래가 온다』(서울: 한국경제신문, 2006).
7. 김중태, 「소셜 웹 혁신을 주도하는 하이퍼세대」(서울: 멘토로, 2010).

8. 노훈 외, 「국방정책 2030」(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9. 박민혁, “군 북위협에 초침 맞춰 전력증강안 변경”, (동아일보 2010.4.21).
10. 박휘락, “정보화시대 군사력 운용개념 분석”, 『교수논총』(서울: 국방대학원, 2007).
11. 배규환, 『미래 사회학 - 미래연구와 21세기 설계』(서울: 나남출판, 2000).
12. 손민중 역, 『100년 후(Next 100 years)』(서울: 김영사, 2010).
13. 육군본부, 「지상군 개념서 초안」(육군본부, 발간 예정).
14. 이규행 역, 『전쟁과 반전쟁』(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9).
15. 이영민, 「군사전략」(서울: 송산출판사, 1991).
16. 이항수 “일, 선장 구속 연장…중 장관급 교류 중단”, (조선일보, 2010.9.20).
17. 정용환, “F-16의 반값…중국산 전투기 ‘인기’”, (중앙일보, 2010.11.20).
18. 채수환, “2040년 천만 원이면 우주서 ‘1박 2일’”, (매일경제신문, 2010.8.24).
19. 카제노마 아셀 역, 『세계 우주 클럽』(서울: 바다출판사, 2010).
20. 하광희 외, 『21세기 전쟁-비대칭의 4세대 전쟁』(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21. 합동참모본부, 「'12~'26 합동군사전략서」(서울: 합동참모본부, 2009).
22. _____, 「'12~'26 합동개념서」(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23. 황보영조 역, 『전쟁의 패러다임: 무력의 유용성에 대하여』(서울: 까치, 2008).
24. Arquilla, J., & Ronfeldt, D, 『Swarming and the future of conflict』(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00).
25.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www.sipri.org/database/milex, 2010.9.10).
26. Katoch, Ghanshyam Singh, “Fourth Generation War: Paradigm for Change,” (Montrey: Naval Postgraduate School, 2005).